

만남과 반가움의 축제

-우리졸업 50 주년 모임에 다녀와서

최무웅 (67 년)

1. 정든 교정에 돌아와 보니 낯선 고장에 눈에 익은 몇 개의 건물과 그 주변을 둘러 다 놓은 것 같았다. 반세기가 흘렀구나.

50 주년 행사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준비를 시작한 것이 2016 년 늦여름 졸업아 일 년 남짓 노고 끝에 일정이 결정 되었다고 한다.

행사는 10 월 23 일 모교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동기 56 명-서울의대 기록. 동기부인 27 명 참석) 기념식 전 방명록 기재 때부터 만남이 시작되었다. 대부분 동기들은 5 년 전 45 주년 모임에서 보았지 싶었다. 그래서 인지 우리의 대화는 처음부터 무엇의 연속처럼 자연스러웠다.

기념식은 지금은 행정관이라 불리는 우리 학창시절 본관건물 3 층 대강당 (물론 우리 땀 없던 공간)에서 예정 된 정시에 시작되었고, 우리보다 꼭 20 년 후배 강대희 학장 (아마 1963 년생, 대충 셈하여 우리가 지금 행정관이라 부르는 이 건물에서 본과 1 학년 을 시작할 무렵이다) 장중환 동차회부회장의 성실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어 우리 동기 회장들 (고국과 재미)의 인사말, 모교발전 기금전달, 감사장, 기념품 전달, 대학 홍보 동영상, 행정관 앞에서 단체 사진 전부 합하여 한시간정도 소요 그곳을 나와 병원 쪽으로 여기저기 공사 중인 교정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걸어서 학교 탐방- 암병원 6 층에 위치한 행복정원에 다다랐다.

예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본관(행정관)의 겉모습과 그 앞의 자그마한 교정은 눈에 익은데 다른 곳들은 온통 낯설었다. 시계탑이 공사담장 너머로 보였다. 해부학 땀 시험을 보던 곳은? slide 를 보여주며 강의 받던 계단 교실은? 한 강의가 끝나면 우르르 몰려 나가 흡연하던 곳은 어디쯤? 그 당시 운동권 친구들과 몇 번 갔던 실비 막걸리 쌍과부집은 어느 방향? 도무지 감이 서질 않았다. 행복 정원에선 고궁(창경궁, 예전 창경원)이 한 눈에 내려보였다. 이곳에서 다시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 대학과 동창회에서 마련해준 기념행사 로고가 찍 힌 Digital Miniscale (내가 가장 필요했던 체중계), Mugs, 수건, 함창곡 동기가 준비한 Bluetooth speaker 등 많은 선물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만찬 장소인 조선포텔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동기 55 명 동기부인 46 명이 참석한 이 기념 만찬은 조한익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오세기 회장, 김상복 재미 회장의 인사말 타계한 동기들에 대한 추모목념에 이어서 진행 된 김성일 동기가 주선하여 마련한 하나연이란 퓨전 국악 그룹의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였다. 특히 재미 동기들에겐 더욱 흥미로웠다. 품위도 있고 추임새 등으로 흥을 돋워 주었다.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이름 지어진 그 다음 프로그램은 우영남 동기가 사회를 맡았다. 이민우, 서정돈 동기는 slide Projector 로 준비된 presentation 을 하였고 다른 많은 동기들이 길고 짧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갑자기 고열이 나서 남가주로 돌아가야 했던 이근웅 동기의 소식도 들었다. “내가 여행 떠난 다음에 발병했으면 모두들 큰 고생 했지” 라고 훗날 안부 전했을 땐 근웅이 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들뜬 분위기의 연회는 다음날 이르게 시작되는 일본 알펜루트 여정 때문에 오래 끌 수가 없었다. 재미 동기들은 8:00 AM 국내 동기들은 6:00AM 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교문 여행사의 안내를 받게 되어 있었다.

2. 열흘 연휴 추석 명절의 열기에 戰運 이 감돈다고요?

연로하신 장모님도 계시고 하여 나는 우리 동기행사 몇 주 전인 시월 초에 서울에 나왔다. 우리 동네 어떤 친구분 말씀이 “하필이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도는 이 때 고국 방문을 하려고” 물론 농담으로 흘려버렸지만 시끄러운 시국이 출국 직전까지 마음에 걸렸다. 공연한 짓인지 알면서도 동부에 사는 우준균 동기의 권고를 따라 STEP(Smart Traveller Enrollment Program)에도 등록하였다. Web Site 에서 설명하기를 STEP allows you to enter information about trips abroad so that the Department of State can assist you better in an emergency – 애매하다.

서울에 도착하여 역사적으로 긴 연휴의 명절 분위기는 나를 이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는데도 만 하루도 채 안 걸렸다. 시사를 다루는 뉴스미디어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미국의 군사적 대응등 한반도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다루는 듯 싶었다. 종종 커플 (송혜교,송중기)의 러브 스토리, 결혼 준비 일화 등의 화젯거리는 높은 인기도를 잃지 않고 있었다.

3. 돈 많고도 가난한(소박한) 나라 일본

우리 50 주년 기념 알펜루트 여행에는 동기 42 명, 동기부인 40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나고야 주부공항(Chubu Centrair International)에 10 월 24 일 12:30 PM 경 도 착하여 교문여행사의 안내로 3 대 관광버스에 분승하였다. 버스마다 다른 투어가이드가 배정되어 있었다. 한 시간이 채 안걸려 나고야 시에 들어섰다. 나고야시는 아이치 현의 도청소재지이며 동경, 京阪神(게이한신,교토시,오사카시,고베시)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의 뒤를 이어 일본에서 3 번째로 큰 도시권, 오사 카에서 100 마일 정도 동쪽 혼슈 섬의 중앙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산업의 본거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토요타의 본부가 나고야의 주변도시 도요타시에 있다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을 배려하여 자기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이곳 나고야 사람들은 좀 달라서 직설적이고 좋게 말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해 좀 무례하다고 2년 전 이곳을 투어 할 때 가이드가 해준 말이다. 지방색에 관한 편견은 어디가나 있는 모양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 명의 쇼군, 다이묘, 삼영걸

- ① 오다 노부나가(직전신장)
 - ② 일본천하를 통일하고 명나라를 쳐부술 길을 내라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
 - ③ 드디어 일본천하를 평정하고 그 집안이 메이지유신 때까지 260년간 에도 막부시대를 펼친 도쿠가와 이에야스(덕천가강)
- 이 세 사람 다 아이치 현 출신이다.

그 날 오후에 오사카성, 구마모토성과 더불어 일본 삼 명성으로 꼽히는 나고야 성을 관광하였다. 대표적 건물 천수각은 1959년에 대부분이 재건되었다고 한다. 이 나고야성은 16세기 초부터 많은 역사적 이벤트를 거쳤고 2차 대전 중 입은 폐허에 가까운 훼손은 지금까지 많이 복원되었고, 그 복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늦은 오후 나고야 시내관광 명소인 Sakae 거리에 나갔다. 나고야 TV 타워(180m 높이의 파리의 에펠탑(324m)와 모양이 비슷하다)가 가까워 보이고 물을 채워놓은 glass 지붕으로 특이한 Visual effect를 주는 Oasis21, 많은 상점들과 식당들이 있었다. 이곳은 나와 김국기 동기가 7-8명의 동기부인들과 함께 실종의 위기를 면한 곳이기도 하다. 이 곳 나고야에선 거리에 서울에서 그 흔하게 보았던 일억 원(10만 불)이 훨씬 넘는다는 유럽제 고급 승용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날 저녁 힐튼 나고야에 투숙하였다.

이튿날(10월 25일)부터 소위 6-7-8 일정이 시작되었다. 6시 기상, 7시 조반, 8시 출발 이른 아침 호텔 뷔페식의 조식 후 배정된 투어 버스에 탔다. 매일 투어 버스와 가이드 그리고 동승하는 동기들이 다르게 운영되었다.

2시간 정도 북쪽으로 고속도로를 달려 시라카와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중에 하나라는 일본 전통 가옥 합장촌마을(시라카와고)을 관광하였다. 그 날은 일본 동쪽을 덮고 있다는 폭풍 때문에 날씨가 음산하고 가랑비가 뿌렸지만 우리들의 산보 관광엔 큰 지장이 없었다. 이 곳 산악촌의 건축양상, 특히 급한 경사의 지붕이 흥미로웠다. 중식은 다시 일본정식(이번엔 갓쇼무라식), 식후 다시 2시간 정도 버스로 도야마 남쪽 교외를 질러 우나츠키역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쿠로베 협곡 도롯코 열차에 탑승하였다. 이 열차 양편이 완전히 개방된 창문이어서 주위 풍경을 감상하기 좋았다.

이 일본 최대의 협곡은 46 개의 터널과 27 개의 교각이 있다고 한다. 왕복 한 시간 정도 걸렸다. 좀 추웠다. 우나츠키역에서 다테야마에 있는 온천 호텔까지 한 시간 남짓, 이날 다 합쳐 5 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탔다. 바쁜 일정의 하루 이었는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동기는 아무도 없었다. 석식은 조금씩 달라진 일본 정식, 많은 동기들이 온천욕도 즐겼다. 이날 저녁도 오세기 회장, 조한익 총무 술대접은 계속 되었고 나같이 마다 않는 주객은 3 일 연속 행복하였다.

4. 이 한 폭의 풍경화에 한 획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주기위해 지난 며칠 세찬 눈보라가 이곳에 머물렀나보다.

호텔을 일찍 떠난 우리는, 멀지 않은 이번 여행의 Flag Ship 인 알펜루트의 출발지, 다테야마역에 갔다. 알펜루트는 이 지방이 유럽의 알프스에 버금간다하여 붙인 관광상품명, 우리가 가졌던 풀코스를 나열하여 보면

- ① 입산에서 비타이라까지 등산열차를 타고 500m 를 가파르게 7 분에 오르고 (귀가 멍멍)
- ② 무로도 까지 고원 버스로 50 분, 1500m 를 더 올라 해발 2,450m
- ③ 다이칸보까지 다테야마(3015m) 산중턱을 뚫는 터널을 버스로 10 분
- ④ 쿠로베타이라까지 로프웨이 (Rope 가 달린 케이블카)를 타고 계곡을 넘어 500m 하강
- ⑤ 쿠로베호수까지 지하 cable car 로 5 분 만에 400m 하강
- ⑥ 도보로 30 분쯤 걸어 쿠로베 댐까지
- ⑦ 그 곳에서 트롤리버스를 15 분

나고야 현에 있는 Ogiawza 역에 위에 서술한대로 알펜루트는 도보를 포함한 일곱 가지 교통수단으로 도야마 현과 나가노 현을 이어주는 90km 관광 코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자연의 풍경을 아끼자기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본 내음이 물씬 난다.

그 전날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폭풍이 완전히 걷히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가 우리를 반겼다. 내가 2 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찬비가 내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짙은 안개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무로도에 가까워가면서 부터 펼쳐진 폭풍후의 이 아름다운 風光은 축복처럼 느껴졌다. 세계 구석구석 안가본데가 없는 여행의 명인 강명식 동기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 폭의 풍경화에 final touch 처럼 지나간 폭풍이 뿌린 눈은 산맥 정상을 따라 곱게 펼쳐져 있었다. 햇별을 흠뻑 받고 있는 낙엽들과 늦가을 나무들, 계곡그림자의 진한색채 옥색의 작은 호수, 이 모든 것이 교향곡에 함께 하였다. 문득 未當서정주의 국화 옆에서의 두 번째 싹귀가 떠올랐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Ogiazwa 역에서 다카야마에있는 온천 호텔까지 어둡고 몹시 좁은 산길을 두 시간 이상 몸을 비비듯 버스는 조심스레 움직였다. 모두가 안전벨트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날 저녁은 석별의 만찬 또 한번 가이세키(일본정식)-홍준호, 조한익 동기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모든 동기들에게 한마디 할 기회가 주어졌다. 어떤 동기들의 준비 안 된 한 말씀 혹은 한 곡조 등은 오히려 우리들의 화기애애 함에 보탬이 되었다. 55주년 행사는 미국 서부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건의도 나왔다. 나는 다시 한번 후한 반주에 만족하였다.

마지막 날 (10/27)도 일찍 기상하여 다카야마 명물 아침시장과 다카야마 또 하나의 관광 명소 - 에도시대가 잘 보존되었다는 작은 교토, 카미산노마치 거리를 관광하고 그 곳에서 세 시간쯤 걸려 나고야 공항에 나왔다. 공항에서 북해도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했다.

5. 큰 행사 큰 성공

오랜 준비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은 오세기회장, 조한익총무, 김상복 미주 회장, 김성일, 김국기, 오수명, 우영남, 함창곡 제 동기들 그리고 후한 기부금으로 모교발전기금, 동창회 기금을 마련하고 우리의 기념여행을 더 풍요롭게 하여준 오세기 회장, 김국기, 유명철, 서정돈, 홍영식, 안영락, 허현, 문경웅, 이민우 동기들 모두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한다. 무엇보다 모든 동기들이 보여준 서로의 우정은 우리들의 만남을 즐겁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에 같이 여행한 많은 동기들이 (아마도 대부분) 5년 전 하와이 크루즈도 같이 하였고 그들의 마음과 몸에 큰 변함이 없음에 앞으로의 동기모임들(55주년, 60주년 등등)도 이번처럼 성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현실성 높은 바람이라고 고무 되었다.

첫날 기념 만찬장에서 서정돈 동기가 적절히 인용한 파옹 고은의 시를 다시 들먹이고 싶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는 그곳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는 혜안,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